

대구지역 경산부의 남아 선호의식 및 아들 낳기 노력의 영향력에 관한 연구*

김 한 곤** · 이 미 경***

본 연구의 목적은 1980년대 중반부터 약 10여년 동안 현저한 출생시 성비불균형을 경험한 대구지역의 경산부들을 대상으로 아들을 낳기 위한 노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밝히는데 있다. 1998년 4월부터 6월까지의 3개월 동안 대구지역의 6개 종합병원에 내원한 임신부들 가운데 출산 경험이 있는 경산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경산부의 아들 낳기 노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도입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대구지역의 경산부들은 여성에 대한 성차별을 많이 느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들선호의식 역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들의 24.7%는 임신 전 아들을 낳기 위한 노력은 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12.2%는 태아의 선별적 인공유산을 통하여 아들을 낳기 위한 노력을 시도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여성에 대한 성차별, 아들선호의식, 자녀 가운데 아들이 없는 경우, 인공임신중절수술 및 연령 등의 요인들이 조사대상자들의 아들을 낳기 위한 노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보아 대구지역의 출생시 성비가 다른 지역보다 높은 이유는 아들을 선호하고 여성을 차별하는 의식의 기반이 되었던 과거 농경 중심사회의 오랜 전통이 상대적으로 많이 남아있는 보수적인 성향의 결과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성향이 소자녀관으로 변화된 현대에 있어서도 아들 하나는 꼭 낳아야겠다는 강한 집념이 현대 의료기기의 발달 및 보급과 의료인들의 영리추구와 이해관계가 부합됨으로써 생겨난 결과로 볼 수 있다.

핵심단어 : 경산부, 출생시 성비 불균형, 인공임신중절, 아들 선호

* 본 논문의 초고에 대해 유익한 지적을 해주신 익명의 두 분 논평자들에게 감사드린다.

** 영남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영남대학교 환경보건학과

I. 연구의 목적 및 배경

한국 사회의 출산력은 196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한 여성이 평생의 가임 기간 동안에 낳는 평균 자녀수가 6.2명을 기록하는 매우 높은 출산력을 나타내었다(김한곤, 1991). 그러나 1961년에 도입된 가족계획사업의 성공적인 수행과 정부 주도하에 수행된 일련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성공과 사회발전의 결과 1985년에는 인구대체수준의 합계출산율 2.1을 기록하였으며 1998년에는 합계출산율이 1.6의 수준에 도달하는 괄목할만 출산율의 저하를 경험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다자녀관에서 소자녀관으로 변화된 가족관 속에서도 아들 하나는 있어야 한다는 아들선호의식이 아직도 상존하고 있는 점 또한 부인할 수 없는 한국사회의 현실이라 할 수 있다(김한곤, 1994b).

이러한 맥락에서 국내에서 생산된 상대적으로 저렴한 초음파기가 전국적으로 널리 보급되기 시작한 1980년대 중반부터 소규모 가족 속에서 적어도 아들 하나는 낳아야겠다는 수요자의 욕구와 의료 종사자들의 영리 목적이 서로 부합하여 태아 성감별을 통한 인위적인 아들내기 노력이 있어 왔다(김한곤, 1997a). 그 결과 약 10년간에 걸쳐 한국사회 전반에 걸쳐 출생시 남아가 많이 태어나는 출생시 성비불균형 현상을 경험하게 되었다(김한곤, 1995). 특히 대구 및 경북지역은 타 지역보다 훨씬 심각한 출생시 성비불균형 현상을 경험하였는데 즉 1985년 이후부터 1994년까지 전국의 출생시 성비는 115안팎인데 비해 대구·경북지역은 125안팎을 유지하는 매우 기형적인 현상을 보여 왔다(김한곤, 1997a).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들이 그 동안 관련학계에서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이홍탁, 1987; 지하룡·박재용, 1988; 최인현·김한곤, 1993; 박경애, 1993; 김두섭, 1994; 서수경, 1996; 김한곤, 1995, 1997a, 1997b; 서문화, 1995).

비록 1995년 이후부터 출생시 성비불균형의 정도가 과거에 비해 완화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불균형 현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대구·경북지역의 출생시 성비불균형은 타 지역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표 1 참조). 이와 같은 지난 10여년에 걸쳐 한국사회가 경험한 출생시 성비의 지나친 불균형 현상은 초등학교 전학년에 걸쳐 남학생들이 여학생들 보다 많을 뿐 아니라 특히 초등학교 1,2,3학년의 저학년에서는 성비불균형이 더욱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들 코호트가 결혼 적령기 도달하게 되는 2010년경부터는 산술적으로 계산한다면 약 25%에 가까운 남성들이 배우

〈표 1〉 광역 행정구역별 출생시 성비 (1984-1997)

지역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전국	108.7	110.0	111.9	109.0	113.5	112.1	116.9	114.0	114.0	115.6	115.3	111.4	111.7	108.4
서울	108.0	108.3	110.9	107.5	111.0	109.7	113.5	110.5	111.2	113.5	113.4	111.1	110.9	106.3
부산	105.6	109.2	112.2	107.8	112.1	114.4	118.8	116.3	117.3	118.7	118.9	117.3	115.5	111.2
대구	113.4	121.0	126.9	121.5	134.8	122.1	130.0	125.7	125.0	125.0	121.4	117.0	116.1	111.7
인천	106.3	108.5	110.3	105.4	110.2	107.3	112.4	108.3	108.0	111.8	114.6	112.7	109.5	107.1
광주	84.0	98.8	102.1	105.8	107.4	109.0	113.7	111.7	113.0	111.0	111.8	107.8	109.5	106.9
대전	88.5	87.5	91.6	100.0	116.8	123.1	123.1	113.8	114.9	120.0	116.5	114.6	110.5	106.1
경기	106.1	106.6	107.5	106.4	109.6	107.6	111.7	109.8	111.4	112.8	112.8	111.6	109.5	108.1
강원	107.0	108.7	106.9	105.5	108.6	110.3	113.8	110.5	111.7	115.9	114.7	112.8	109.5	106.7
충북	108.4	110.1	113.0	108.2	113.0	111.5	117.3	112.7	117.5	116.8	114.7	115.0	115.2	106.1
충남	110.2	108.9	110.1	109.2	114.3	110.9	117.4	112.9	116.2	114.5	116.2	111.8	112.4	107.5
전북	109.2	107.8	107.7	105.7	109.4	108.3	114.7	107.7	107.9	110.3	109.9	112.7	105.4	107.8
전남	109.8	105.9	111.0	107.3	112.3	110.2	114.6	111.4	110.3	114.5	112.9	111.5	111.0	106.5
경북	113.3	120.0	111.5	118.6	125.7	127.4	131.2	123.8	123.2	124.4	124.4	118.7	115.2	113.1
경남	107.9	109.9	114.3	112.8	119.3	117.7	124.1	111.7	120.6	121.7	120.1	119.3	117.4	112.0
제주	106.4	108.4	116.5	106.5	110.5	113.2	120.3	105.7	118.3	108.2	114.8	112.9	111.8	110.3

자료: 인구동태연보, 1990-1997; 김한근, 1997a.

자를 구할 수 없는 상태의 여성의 절대적인 부족이 예상된다(김한근, 1994a, 1995). 뿐만 아니라 노동력의 공급, 노인복지, 결혼 및 가족관의 변화 등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바이다(김태현, 1993; 김두섭, 1994; 김한근, 1995, 1997b).

이와 같이 사회 전반에 걸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출생시 성비불균형 현상은 첫째아 에서부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둘째아 및 셋째아로 갈수록 불균형의 정도가 심각해지고 있음이 여러 문헌을 통하여 밝혀진 바 있다(이홍탁, 1987; 이종기외 1993; 김두섭, 199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4).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심화된 한국사회 전반에 걸친 성비불균형현상 가운데 그 정도가 가장 심한 대구지역의 출생시 성비불균형의 원인을 한 번 이상의 출산경험이 있는 경산부를 연구

대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기존의 연구에 의하면 출생시 성비불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인 요인으로는 첫째, 사회전반에 걸쳐 존재하고 있는 여성 차별과 아들선호의식; 둘째, 소규모 가족관이 형성된 현재까지 자식 가운데 아들 하나는 꼭 있어야겠다는 강한 집념; 셋째, 현대 의학기술의 발달 및 초음파기와 같은 현대 의료기기의 확대 보급; 넷째, 아들남기를 희망하는 수요자의 욕구와 의료인들의 영리추구 목적의 결합을 들 수 있다. 특히 출생시 성비불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직접적인 요인으로는 아들을 낳기 위하여 시도하는 태아의 성감별 후 여아로 판명되었을 경우 임신중절 수술을 통한 선별적 출산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김한곤, 1994a).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경산부들의 아들선호의식과 아들을 낳기 위한 노력의 실태 및 출생시 성비불균형의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아들남기 노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경험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산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출생시 성비불균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아들남기 노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경험적으로 규명하고자 하며 이러한 연구결과는 학술적인 면에서 뿐만 아니라 정책적인 면에서도 중요한 기초자료로 이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바이다.

Ⅱ. 경산부의 남아선호의식 및 아들남기 노력의 결정인자에 관한 문헌연구

본 연구와 관련된 국내외 연구 동향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1980년대 후반에 들어오면서 다른 나라에서도 출생시 성비불균형에 관한 관심과 연구들이 꾸준히 이루어져 오고 있다. 이들 연구 가운데 특히 많은 관심이 가는 연구는 세계인구의 약 22%를 차지하는 중국의 성비불균형에 관한 연구와 1980년대 후반부터 출생시 높은 성비를 경험하고 있는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들을 들 수 있다(김한곤, 1997a).

쟁위(Zeng Yi, 1933)에 의하면 중국의 경우 1988년부터 출생시 성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출생시 성비가 높아지는 일차적인 이유로는 소규모 가족관을 추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남아를 선호하는 의식을 지적하고 있으며 그 다음은 태아의 성

감별을 통한 인공중절수술을 들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 한국과는 다르게 여자유아의 살해와 여자아이의 출생을 숨기는 것이 공식적인 성비 불균형의 부분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Hull, 1990 ; Johansson & Nygren, 1991). 홍콩, 대만, 방글라데시에서도 1980년대 후반부터 소자녀관 속에서 아들을 선호함으로써 출생시 성비불균형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서 이러한 새로운 현상에 대한 실태파악 및 원인규명을 위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가간의 비교연구 역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Gu, 1994).

아시아 지역의 몇몇 국가들의 출생시 성비불균형은 인구정책, 출산력의 급속한 감소, 그리고 문화적 배경의 차이에서 기인되며, 출산자녀수의 감소만을 강조한 결과 출산력이 급속하게 떨어지면서도 아들 선호도가 여전히 뚜렷하게 남아있는 문화권에서 일어나는 경향이 강하다(Gu, 1994). 남아선호 사상은 극소수의 모계사회를 제외하고는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현상이지만 지역적으로는 아랍 및 동남아시아에서, 종교적으로 볼 때는 일반적으로 동양의 유교나 이슬람 문화권에서 특히 강하게 나타난다(Williamson, 1976). 케인(Cain, 1986)과 콜드웰(Caldwell, 1982)은 세계 여러 나라들의 남아선호를 노후의존에서 찾고 있으며, 인도에서도 신부대금이나, 혈통, 가족관계를 중시하는 종교 및 관습과 노후의 경제적 의존 때문에 남아선호사상이 아직까지도 출산 행위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Das, 1987).

첫째 자녀에서 두 번째 자녀로의 진행여부는 첫째 자녀의 성과 무관하지만 두 번째 자녀에서 세 번째 자녀로의 진행여부는 두 번째 자녀의 성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Lee, 1982). 이처럼, 첫째에서 둘째 또는 둘째에서 셋째 자녀로의 진행여부는 성선호의 영향을 받음이 확실하고 나아가서 자녀의 수를 결정지으며 소자녀 규범이 강할수록 성선호가 출산행위에 미치는 영향은 증대될 것으로 예상한다(Yamaguchi, 1989).

앞에서 논의한 바를 요약 정리해 보면 바람직한 가족규모에 관한 규범의 변화와 함께 출산율의 급속한 감소는 출생시 성비불균형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태국과 같이 아들선호가 없는 문화권에서는 출생시 성비불균형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출생시 성비불균형은 문화적 배경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 즉 자녀양육에 있어서 아들을 선호하는 현상은 사회전체로 볼 때 성차별을 반영하는 것이며, 그러한 현상은 사회의 제도적인 면에 있어서도 다양하게 나타난다(Gu, 1994).

국내에서 수행된 출생시 성비불균형과 관련된 연구들 중에서 연관이 있는 문헌들을 요약 정리 해보면 다음과 같다. 지하룡과 박재용(1988)은 1984년에서 1987년까지 4

년 동안에 대구시의 5개 종합병원의 출생아를 대상으로 성비불균형 실태를 파악한 바 있는데 그들에 따르면 산모의 교육수준, 종교, 남편의 직업 등은 성비불균형과 그다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산모의 연령과 출산순위, 그리고 생존자녀의 성구성은 성비불균형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일현(1990)은 그의 연구 '우리나라의 출산성비분석'에서 출생시 성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이상자녀수, 현존아들수, 현존딸수, 그리고 거주지를 들고 있다. 출생시의 성비불균형은 출산력의 수준이 극히 낮아진 1980년대 중반부터 남녀간의 차별의식이나 남아선호관이 잔존하면서도 적은 자녀수를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심화되었다. 출생시의 성비불균형은 대구, 경상북도, 그리고 경상남도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출생시 성비의 지역별 격차는 결국 성선별 출산행위 및 낙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김두섭, 1994; 서수경, 1996; 김한곤, 1997a, 1997b).

우리나라의 출생시 성비불균형 현상은 사회의 각 부문에 편재하는 여성차별과 강한 남아선호관에 주로 기인한다. 지구상에는 자녀의 특정 성을 선호하는 다양한 문화가 존재한다. 만약 성선호의 강도가 강하면,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하여 출생시의 성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남아선호사상은 출생시의 성비불균형, 남녀별 이상 자녀수, 현존자녀의 성별 분포에 따른 가족계획 실천율에도 현저한 영향을 미친다(지하룡·박재용, 1988; 박경애, 1993).

한국의 남아선호는 조선 중기부터 강하게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최재석(1983)에 의하면 신라시대에는 아들, 친손자, 딸, 사위, 외손자까지도 왕위 계승에 포함되었음은 물론 재산에 있어서도 남녀 구분상속이었다. 조선조 세종 때까지만 해도 엄격한 부부별산제가 유지되었고, 재산상속에 있어서도 남녀의 구별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혈통을 잇기 위해 양자를 맞아들인 예도 거의 찾아 볼 수가 없었다. 그런데 조선조 후기에 들어오면서 유교의 보급과 당쟁의 심화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직계가족제도 문중조직 적장자상속제도 등이 확립되어 남존여비 사상과 남아선호 사상이 일반화되었다고 한다. 이홍탁(1982)도 고려조와 조선초기까지는 여성도 남성과 같이 균등한 배분은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부모 재산을 상속하였고 경우에 따라서는 딸이 제사를 받드는 사례가 있었으나 17세기에서 18세기에 걸쳐 급격히 증가한 인구로 말미암아 여성은 상속에서 제외되는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의 전통사회에서는 아들에게 노후를 의지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 이러한 노후의탁의식은 산업화와 핵가족화로 많이 약화되었지만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가계계승이나 가문의

번영과 같은 부계혈연의식은 아직도 강하게 남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Lee, 1982).

아들을 낳고자 하는 강한 집념의 유래는 과거 농경사회에서 남자의 노동력이나 경제적인 역할이 강조되던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아울러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가부장제와 유교적인 의식구조의 영향을 받아 아들을 갖지 못한 부인은 온갖 차별과 박해의 대상이 되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적어도 아들 하나는 낳아야 한다는 강한 집념이 형성되었다. 남아를 선호하는 의식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오늘날에도 우리사회에 광범하게 존재하고 있으며, 성선별 출산행위의 동기가 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김두섭, 1994; 김한곤, 1997).

지금까지 논의한 참고문헌 연구에 따르면 출생시 성비불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는 아들선호의식, 성차별정도, 연령, 인공중절수술 회수, 아들의 유무 등을 들 수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대구시내의 지역적인 분포를 고려하여 6개 병원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중구의 K대학병원, 달서구의 B병원, 북구의 S병원, 남구의 Y대학병원과 H대학병원, 동구의 P병원 등 6개 병원의 분만실에 온 경산부를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1998년 4월 1일 부터 1998년 6월 30일까지 3개월간 설문을 위한 교육을 받은 간호사들의 협조아래 6개 병원의 경산부를 대상으로 응답자가 스스로 설문지를 기입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총 700부의 설문지를 수집하여 이 중 기재가 불완전하여 사용할 수 없는 60부를 제외한 640부를 유효설문지로 사용하였다.

2. 분석가설

지금까지 논의하였던 관련 문헌들을 중심으로 대구지역 경산부들의 아들낳기 노력

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들을 경험적으로 규명하기 위하여 설정한 본 연구의 조사가설은 다음과 같다.

아들선호의 동기화를 나타내는 여성에 대한 차별, 아들선호의식, 아들의 유무, 인공임신중절회수, 연령 등은 대구지역 경산부들의 아들낳기 노력과 정적인 관계가 있을 것이다.

3. 변수 및 측정방법

1) 독립변수

본 연구에 도입된 독립변수는 '여성에 대한 성차별 정도' '아들선호 정도' '아들의 유무' '인공유산회수' '연령'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응답자의 교육수준' '남편의 교육수준' '응답자의 주성장지'의 아홉 가지이다. 즉 아들선호의 동기화를 나타내기 위하여 여성에 대한 성차별 인식정도와 아들선호도의 두 가지 요인을 도입하였다. 성차별인식 정도는 남성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여성을 차별하는 사회의 문화적 배경이 아들을 선호하게 되는 기본동기가 된다는 전제하에 여성에 대한 차별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도입한 네 가지 항목의 5점 척도의 합계로 측정하였다. 아들선호도는 아들의 필요성을 가늠하기 위하여 사용된 5점 척도의 합계점수로 측정하였다. 아들의 유무는 '있다'와 '없다'의 범주형으로 측정되었다. 인공유산회수는 조사당시까지의 인공임신중절회수로 나타냈으며 연령은 응답자의 실제의 만 연령으로 측정되었다. 성차별 정도와 아들선호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도입한 각각의 다섯 가지 변수들로 구성된 지수들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크론바의 알파값으로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0.79와 0.82의 값으로 비교적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종속변수

본 연구에는 두 개의 종속변수가 도입되었다. 첫째는 '임신 전 아들 낳기 노력여부'로 임신 전 아들 낳기를 시도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이다. 둘째는 '임신 후 아들을 낳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임신중절수술을 시도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이다.

4. 통계처리 및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에 응답한 개인들을 분석단위로 사용하였으며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및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기술통계를 도입하였다. 도입된 가설들을 경험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상관관계 및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행하였다.

1998년은 무인년 호랑이 띠로 여아의 출산을 기피하는 오랜 관습의 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조사기간이 3개월로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계절적 영향을 받을 소지가 있음을 밝혀 둔다.

Ⅳ. 연구결과

1. 대구지역 4개 대학병원의 신생아 성비: 1996-1997

대구시내에 소재하는 종합병원에서 최근 2년 동안에 출생한 신생아들의 성비를 알아보기 위하여 대구시 4개 대학부속 종합병원의 분만대장에 기초한 출생시 성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에서 대구시내 4개 대학병원의 1996년 및 1997년의 성비를 살펴보면 첫 번째 출산아는 103.5 와 104.0으로 정상적인 출생시 성비를 보여주고 있다. 두 번째 출산아는 출생시 성비가 126.0과 121.8로서 비교적 높은 출생시 성비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두 번째 출생부터 인위적으로 선택적인 출산이 많이 행하여지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2.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표 3〉와 같다.

연령의 경우 24세 이하 3.1%, 25-29세 35.7%, 30~34세가 48.2%, 35세 이상 13.0% 순으로 나타났다. 초혼연령의 경우는 25~29세가 58.5%로 가장 높았으며, 24세이하 35.2%, 30세 이상 6.3%의 순으로 나타났다. 종교는 '없다' 라고 응답한

(표 2) 대구시 4개 종합병원 분만대장에 근거한 신생아 성비(1996-1997)

연도 및 출산순위		병 원		K병원	Y병원	P병원	H병원	계
		남	여					
96년	첫번째 출산아	남		317	697	1745	1011	3770
		여		256	731	1681	974	3642
		성비		123.8	95.3	103.8	103.8	103.5
	두번째이상 출산아	남		337	893	1854	1131	4215
		여		245	647	1561	886	3339
		성비		137.6	138.0	118.8	127.7	126
97년	첫 번째 출산아	남		301	596	1691	973	3561
		여		279	554	1638	962	3433
		성비		107.9	107.6	103.2	101.1	104
	두번째이상 출산아	남		306	707	1709	1048	3770
		여		244	552	1396	902	3094
		성비		125.4	128.1	122.4	116.2	121.8

자료: 대구시 4개 종합병원 분만대장(1996-1997)

사람이 37.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불교 36.3%, 기독교 17.4%, 천주교 8.2% 순으로 나타났다. 주성장지의 경우 대도시가 52.2%, 중소도시 20.6%, 읍 면소재지 이하 27.2%로 과반수가 대도시에서 주로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은 전업 주부가 80.6%로 가장 많았으며, 교육정도는 전문대졸 이상 45.4%, 고졸 50.8%로 응답자의 거의 대부분(96.2%)이 고졸이상으로 상당히 높은 교육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150~299만원 사이가 58.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50만원 이하가 24.0%, 300만원 이상은 17.3%로 밝혀졌다. 조사당시의 평균자녀수는 딸이 1.47명 아들은 1.26명으로 나타났으며, 이상적인 자녀수는 아들, 딸 각각 1.20, 1.21로 거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응답자들의 평균인공유산횟수는 1.49회로 밝혀졌다.

〈표 3〉 응답자들의 일반적 특성

	구 분	N	%
연 령	24세 이하	13	3.1
	25~29세	228	35.7
	30~34세	308	48.2
	35세 이상	82	13.0
초혼연령	24세 이하	101	35.2
	25~29세	374	58.5
	30세 이상	40	6.3
종 교	기독교	111	17.4
	천주교	52	8.2
	불교	231	36.3
	무	238	37.3
	기타	5	0.8
주성장지	읍,면소재지 이하	174	27.2
	중,소도시	132	20.6
	대도시	333	52.2
직업유무	있다	124	19.5
	없다	515	80.5
교육정도	국졸	3	0.5
	중졸	21	3.3
	고졸	325	50.8
	전문대이상	290	45.4
소 득	0~149만	151	24.0
	150만~299만	348	58.7
	300만 이상	109	17.3
평균자녀수	아들		1.26
	딸		1.47
이상적인 자녀수	아들의 수		1.20
	딸의 수		1.21
평균 인공임신중절회수			1.49

3. 남아선호의식의 실태 및 선호이유

응답자들의 남아선호의식의 정도는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들이 필요하다' 라고 응답한 사람은 62.1%로 '필요하지 않다' 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12.2%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아들이 필요한 이유를 <표 5>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들이 필요한 다섯가지 이유 가운데 '가문의 번성을 위해서 필요하다' 라고 응답한 사람이 28.5%로 가장 높았으며 '제사를 모시기 위해서 아들이 필요하다' 라고 응답한 사람이 26.1%, '노후보

<표 4> 응답자들의 아들선호의식 정도

구 분	N	%
필요하지 않다	78	12.2
그저 그렇다	164	25.7
필요하다	395	62.1

<표 5> 아들이 필요한 이유

	구 분	N	%
노후보장	필요하지 않다	255	39.9
	그저그렇다	286	44.8
	필요하다	98	15.4
재산상속	필요하지 않다	363	56.8
	그저그렇다	230	36.0
	필요하다	46	7.2
제사모시기	필요하지 않다	267	69.2
	그저그렇다	205	32.6
	필요하다	167	26.1
가문의 번성	필요하지 않다	247	38.6
	그저그렇다	210	32.9
	필요하다	182	28.5
영향력 행사	필요하지 않다	357	56.4
	그저그렇다	199	31.4
	필요하다	77	12.2

〈표 6〉 성차별 인식정도

	구 분	N	%
사회생활	없는 편이다	189	29.6
	그저그렇다	274	42.9
	차별이 있다	175	27.5
가정내 차별	없는 편이다	339	53.0
	그저그렇다	202	31.6
	차별이 있다	98	15.4
의사결정	없는 편이다	87	13.6
	그저그렇다	326	51.6
	차별이 있다	226	35.3
남자로 태어나고 싶다	없는 편이다	206	32.2
	그저그렇다	205	32.2
	차별이 있다	228	35.7

장을 위한 이유'가 15.4%, '영향력의 행사' 12.2%, '재산상속' 7.2%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보아 아들을 필요로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들의 성공을 통하여 가문을 빛내고 조상의 은덕을 기리기 위한 제사를 모시는 일과 아들을 통하여 가계의 혈통을 잇는 전통적 유교적 관습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성차별 인식정도

〈표 6〉은 성차별의 인식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에 도입한 네 가지의 항목에 관한 응답자들의 인식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네 가지 항목 가운데 '의사결정' 항목에서 성차별을 가장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가정 내에서의 느끼는 성차별의식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5. 경산부의 아들낳기 노력의 실태 및 영향력 분석

1) 임신 전 아들을 낳기 위한 노력의 실태

〈표 7〉은 '임신 전에 아들을 낳기 위한 노력을 시도한 적이 있다' 라고 응답한 사람

〈표 7〉 임신 전 아들 낳기 노력실태

	구분	N	%
임신 전	있다	157	24.7
	없다	480	75.3

〈표 8〉 임신 전 아들 낳기 노력방법

구분	N	%
과학적	87	65.4
비과학적	46	34.6

*무응답은 제외되었음

〈표 9〉 임신 전 아들 낳기 노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상관관계 매트릭스

	임신전 아들 낳기 노력	아들 유무	주성 장지	아들 선호 점수	성차별점수	응답자의 교육수준	소 득	인공 임신 중절 회수
아들유무	0.0900							
주성장지	0.0680	-0.0174						
아들선호 점수	0.2354***	-0.0938	-0.1691***					
성차별 점수	0.1441**	-0.1238*	0.0088	0.2805***				
응답자의 교육 수준	-0.1109*	-0.0328	0.3066***	0.1406***				
소득	0.0193	-0.0975*	0.0349	0.0535	0.1356**	0.3090***		
인공 임신 중절 회수	0.1631*	-0.0065	-0.0169	-0.0078	-0.00375	0.0841	0.0990*	
연령	0.1481**	-0.0601	-0.0175	0.1469**	0.0321	-0.0234	0.2814***	0.0836

*: 0.05 ** : 0.01 *** : 0.001

이 24.7%인 반면 '노력을 해본 적이 없다' 라고 응답한 사람은 75.3%로 나타났다. 즉 응답자의 약 1/4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임신 전에 아들을 낳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임신 전 아들을 낳기 위하여 시도한 방법 가운데 식이요법을 통한 알칼리성 체질로의 전환이나 남아를 수태할 확률을 높인다는 의약품의 복용 등 비교적 과학적 방법에 해당하는 방법을 선택한 사람은 65.4%인 반면에 아들을 낳기 위한 방법으로 민간신앙이나 주술과 같은 비과학적인 방법을 시도한 응답자는 34.6%로 나타났다(표 8 참조).

2) 임신 전 아들낳기 노력의 영향력 분석

성비불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 도입된 가설을 중심으로 아들낳기 노력 가운데 먼저 임신 전 아들낳기 노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상관관계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경험적 검증을 하였다.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들선호의식(0.2354), 성차별점수(0.1441), 인공임신중절(0.1631) 및 연령(0.1481)

<표 10> 임신 전 아들낳기 노력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변 수	회귀계수	표준오차
아들의 유무(없다=1, 있다=0)	0.9067***	0.3482
주성장지(도시=1, 농촌=0)	0.5496	0.3682
아들선호도	0.1455***	0.0376
성차별	0.0872	0.0526
응답자의 교육수준	0.6207	0.2735
소득	-3.40E-07	1.629E-07
인공임신중절회수	0.5536**	0.1895
연령	0.1832*	0.0418
상수	10.0165	1.7999
모델 χ^2	50.124	
자유도	8	
P	0.0000	
사례수	640	

*: 0.05 **: 0.01 ***: 0.001

은 임신 전 아들낳기 노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응답자의 교육수준(-0.1109)은 부적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상관관계분석은 다른 변수들의 영향력을 통제하지 않은 단순상관관계만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좀더 설득력 있게 경험적으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도입하여 임신 전 아들 낳기 노력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인자를 규명하였다.

〈표 10〉에서는 독립변수들의 영향력을 통제하고 임신 전 아들낳기 노력에 영향을 미치는 각각의 변수들을 규명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도입하였다. 임신 전 아들낳기 노력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등식에서 임신 전 아들낳기 노력에 대한 대수승산(log odds)을 아들의 유무, 주성장지, 아들선호도, 성차별정도, 응답자의 교육수준, 소득, 인공임신중절회수, 연령 등 8개의 독립변수와 회귀하였다. 〈표 10〉의 계수들은 임신 전 아들낳기 노력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임신 전 아들 낳기 노력을 하는 것의 대수승산의 효과를 나타낸다.

대구지역 경산부들의 경우 주성장지, 성차별, 교육수준, 소득 등은 임신 전 아들낳기 노력에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본 연구결과 밝혀졌다. 그러나 경산부 가운데 아들이 없는 경우는(0.9067) 임신 전 아들낳기 노력에 보다 적극적인 것으로 본 연구결과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아들선호도(0.1455) 또한 임신 전 아들낳기의 대수승산을 상당히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보아 아들을 선호하는 경산부들은 임신하기 전부터 아들을 낳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공임신중절회수 역시 임신 전 아들 낳기 노력의 대수승산(0.5536)을 상당히 증가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인공임신중절의 상당수가 선별적 출산의도에서 기인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는 임신 전 아들 낳기 노력에서부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연령 역시 임신 전 아들낳기 노력의 대수승산(0.1832)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본 연구결과 밝혀졌다. 즉 연령이 높을수록 임신 전부터 아들을 낳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구결과로 미루어 보아 성차별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들은 가설설정에서 기대한 바와 같이 임신 전 아들낳기 노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잘 나타내고 있다.

3) 임신후 아들을 낳기 위한 노력의 실태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임신 후 아들을 낳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초음파를 통한 태아의 성감별후 임신중절수술을 시도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조사대상

〈표 11〉 아들 낳기 위한 임신 후 낙태여부

구 분	N	%
있다	78	12.2
없다	558	87.8

〈표 12〉 임신 후 아들 낳기 노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상관관계 매트릭스

	임신전 아들 낳기 노력	아들 유무	주성 장지	아들 선호	성차별점수	응답자의 교육수준	소 득	인공 임신 중절 회수
아들유무	0.0709							
주성장지	0.1100*	-0.0174						
아들선호 점수	0.2110*	-0.0938	-0.1691***					
성차별 점수	0.1897***	-0.1238*	0.0088	0.2805***				
응답자의 교육 수준	-0.0050	-0.0328	0.3066***	0.1406***				
소득	-0.0165	-0.0975*	0.0349	0.0535	0.1356**	0.3090***		
인공 임신 중절 회수	0.0640	-0.0065	-0.0169	-0.0078	-0.00375	0.0841	0.0990*	
연령	0.1578**	-0.0601	-0.0175	0.1469**	0.0321	-0.0234	0.2814***	0.0836

*: 0.05 ** : 0.01 *** : 0.001

자 가운데 12.2%로 나타났으며, 아들을 낳을 목적으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은 87.8%로 밝혀졌다. 이러한 수치는 1995년에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기혼여성들을 대상으로 김한곤(1997)이 실시한 연구결과의 24.5%보다는 상당히 낮은 비율이다.

4) 임신 후 아들낳기 노력의 영향력 분석

그러면 지금부터 성비불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

도입된 가설을 중심으로 아들낳기 노력 가운데 임신 후 아들낳기 노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상관관계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경험적 검증을 하기로 한다.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성장지(0.1100), 아들선호의식(0.2110), 성차별집수(0.1897), 연령(0.1578)은 임신 후 아들낳기 노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관관계분석은 다른 변수들의 영향력을 통제하지 않은 단순 상관관계만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좀더 설득력 있게 경험적으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도입하여 임신 후 아들낳기 노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였다.

<표 13>은 임신 후 아들낳기 노력에 영향을 미치는 각각의 변수들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도입하여 규명한 결과이다. 임신 후 아들낳기 노력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등식에서 임신 후 아들낳기 노력에 대한 대수승산(log odds)을 아들의 유무, 주성장지, 아들선호도, 성차별정도, 응답자의 교육수준, 소득, 인공임신중절회수, 연령 등 8개의 독립변수와 회귀하였다. <표 13>의 계수들은 임신 후 아들 낳기 노력을 하지 않

<표 13> 임신 후 아들낳기 노력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변 수	회귀계수	표준오차
아들의 유무*없다=1, 있다=0)	0.7152*	0.2427
주성장지(도시=1, 농촌=0)	1.2704*	0.5484
아들선호도	0.1400**	0.0465
성차별	0.2255**	0.0704
응답자의 교육수준	-0.0719	0.8320
소득	-3.38 ^{E-07}	2.364 ^{E-07}
인공임신중절회수	0.2297*	0.0273
연령	0.1589**	0.0579
상수	11.0125	
모델 χ^2	205.846	
자유도	8	
P	0.0001	
사례수	640	

*: 0.05 **: 0.01 ***: 0.001

는 것에 대한 임신 후 아들낳기 노력을 하는 것의 대수승산의 효과를 나타낸다.

대구지역 경산부들의 경우 교육수준과 소득은 임신 후 아들낳기 노력에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본 연구결과 밝혀졌다. 그러나 경산부 가운데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0.7152) 임신 후 아들낳기 노력에 보다 적극적인 것으로 본 연구결과 밝혀졌다. 아들선호도(0.1400) 또한 임신 후 아들낳기의 대수승산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들을 선호하는 경산부들은 임신한 후에도 아들을 낳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임신 전 아들낳기 노력의 경우와는 다르게 성차별정도(0.2255) 역시 임신 후 아들 낳기의 대수승산을 상당히 증가시키는 것으로 본 연구결과 밝혀졌다. 인공임신중절회수 역시 임신 전 아들낳기 노력의 대수승산(0.2297)을 상당히 증가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임신중절수술의 상당수가 선별적 출산의도에서 기인되고 있음을 경험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연령 역시 임신 후 아들낳기 노력의 대수승산(0.1589)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본 연구결과 밝혀졌다. 즉 연령이 높을수록 아들을 낳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구결과로 미루어 보아 본 연구에 도입된 독립변수 가운데 아들의 유무, 아들선호도, 성차별정도, 인공유산회수, 연령은 가설설정에서 기대한 바와 같이 임신 후 아들 낳기 노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V. 결 론

본 연구에서 밝혀진 바를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대구시내 6개 종합병원 내 원 경산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아들이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62.1%로 여전히 아들선호의식이 상당히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들의 필요성의 이유로서는 가문의 번성과 제사모시기 등과 같은 전통적인 유교적 문화적 특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성차별의 인식정도에서도 여전히 성차별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1995년에 수행한 대구지역 기혼여성들의 아들선호도 및 성차별의식에 관한 연구결과와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김한곤, 1997a)

아들을 낳기 위한 노력의 실태조사에서는 임신 전에 아들을 낳기 위한 노력을 시도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24.7%이며, 이들 가운데 과학적인 방법을 시도한 사람은

65.4%, 비과학적인 방법을 시도한 사람은 34.6%로 밝혀졌다. 임신 후에 아들을 낳기 위한 시도를 한 사람은 응답자들의 12.2%인 것으로 밝혀졌다.

아들낳기 노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가설검정의 결과 임신 전 아들낳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서는 아들이 없을수록, 아들선호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인공유산회수가 많을수록 임신 전부터 아들낳기 노력을 하는 것으로 본 연구결과 밝혀졌다. 그러나 기대와는 다르게 성차별 인식정도는 임신 전 아들낳기 노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임신후 아들낳기 노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경험적 가설검정에서는 아들이 없을수록, 아들선호도가 높을수록, 성차별 인식정도가 높을수록, 인공유산회수가 많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아들낳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므로 비록 1996년 이후부터 비록 출생시 성비불균형이 과거보다 완화되긴 하였지만 아직도 본 연구결과 대구시내 종합병원에 내원하는 경산부들의 경우 아들을 낳기 위한 노력을 임신전부터 시도하고 있으며, 임신후에도 태아의 성감별을 통한 선별적 출산을 통하여 소규모 가족 속에서 적어도 한 명 이상의 아들을 낳기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음이 본 연구결과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출생시 성비불균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아들낳기 노력에 아들의 유무, 아들선호도, 성차별의 인식정도, 인공유산회수, 연령 등의 변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인 관계를 미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대구지역 경산부들의 출생시 성비불균형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에 해당하는 아들낳기 노력의 가장 큰 원인은 지나치게 강하게 남아있는 유교적 전통에서 비롯되는 아들선호의식과 여성에 대한 성차별에서 출발함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아들선호와 성차별 의식은 사회계층과 교육수준의 차이를 막론하고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대구지역 출생시 성비불균형 문제를 완화 혹은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995년이래 출생시 성비불균형이 과거보다 조금은 완화되긴 하였지만 여전히 대구지역은 상대적으로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를 완화하기 위한 방편으로는 무엇보다도 먼저 여성에 대한 성차별의 근절과 아들선호의식의 인식들을 변화시키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겠다. 이러한 노력은 여성에 대한 성차별의 근절 및 완화를 위한 실질적이고 보다 구체적인 방법을 강구하는 정책적 배려를 도입해야 함은 물론 언론매체를 통한 성차별과 아들선호에 대한 홍보 내지 계몽활동 역시 출생시 성비불균형의 완화에 상당히 중요한 일

이라 하겠다.

뿐만 아니라 태아의 생명의 존엄성을 인식시키는 교육과 홍보활동을 꾸준히 전개해야 할 것이며, 일부의 의료인에 한정되긴 하지만 의사로서의 사명감을 일깨우는 의식 개혁 역시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출생시 성비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차선의 방안으로는 일선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선별적 출산을 목적으로 하는 태아 성감별을 보다 강력하게 규제하기 위하여 이미 도입되어 있는 관련 법규를 보다 강화하고 이를 어기는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처벌하는 보다 엄정한 법의 집행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자료의 수집과정에서 현실적 어려움으로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는 종합병원을 잘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의 선정이 엄격하게 되지 못한 점을 들 수 있으며, 조사기간 역시 일년의 특정기에 해당하는 3개월에 걸쳐 이루어졌으므로 이 또한 제한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대구지역 경산부들의 아들 낳기 노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보다 객관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출생시 성비불균형이 덜 심각한 다른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비교연구 작업은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두섭(1994), "한국인구의 성별구조의 최근 변화", 사회과학논집, 한양대학교, 제13집 : 273-296.
- 김일현(1990), "우리나라의 출산성비분석", 우리나라 인구변동의 분석, 한국보건연구원 : 133-154.
- 김태현(1993), "저출산 수준과 강한 남아 선호관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 성연령별 인구구조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인구학회지, 16권(2) : 1-23.
- 김한곤(1991), "한국 여성의 지위와 출산력 : 1966-1985", 한국사회학, 제25집 겨울호 : 177-198.
- 김한곤(1994a), "성비불균형이 가져오는 새로운 증후군들", 가정의 벗, 7월호 : 26-33.
- 김한곤(1994b), "여성의 지위와 출산력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인구학회지, 17권(2), 한국인구학회 : 21-43.
- 김한곤(1995), "대구 경북지역의 출생시 성비불균형의 실태와 문제점", 인문연구,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제16집(2) : 253-266.
- 김한곤(1997a), "선별적 인공유산의 결정인자에 관한 비교연구: 대구지역과 미국캘리포니아 베이지역", 한국인구학, 제20권(1) : 65-96.
- 김한곤(1997b), "출생시 성비 불균형의 원인에 관한 질적 분석 : 대구지역과 미국 캘리포니아 베이지역의 비교연구", 인문연구,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제17집(1) : 271-292
- 박경애(1993), "임신부의 자녀관 : 성선호와 임신동기", 대학가정학회지, 제31권(1) : 25-33.
- 서문희(1995), "우리나라 출생성비 불균형의 지역차이에 관한 연구", 보건사회연구, 제15집.
- 서수경(1996), 출생시 성비불균형의 지역간 비교연구 : 대구시와 광주시를 중심으로, 영남대 석사학위논문.
- 이중기외 3(1993), "최근 10년간(1982-1991)대구 가톨릭 의료원에서 출생한 경산부 신생아 남녀 성비에 관한 통계 보고", 대한 산부인과 학회지, 제36권(10) : 3565-3575.
- 이홍탁(1987), 한국의 출산력 변화와 전망, "아들선호가 출산행태 및 가족규모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구보건연구소.
- 지하룡·박재용(1988), "중합병원 출생아의 성비에 관련된 요인", 인구학회지, 제11권(2) : 67-76.
- 최재석(1983), 《한국가족제도사 연구》, 서울 일지사

- 최인현·김한곤(1993), “한국에 있어서 급속한 출산율 저하의 영향 - 문제점 및 대책 -”, 《보건사회논총》제13권(1) : 141-159.
-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4), 성비의 불균형 변동추이와 대응방안.
- Lee, Hung-tak(1984), “Fertility Impact of Sex Composition and Sequence among Korean Women : An Exploratory Study”, *Journal of Population and Health Studies*, Vol. 4, No.1 : 161-176.
- Cain, Mead(1986), “Fertility as an Adjustment to Risk”, in Alice Rossi(ed.), *Gender and the Life Course*, N.Y. : Aldine : 145-160.
- Caldwell, J. C.(1982), *Theory of Fertility Decline*, N.Y. : Academic Press.
- Das, Marayan(1987), “Sex Preference and Fertility Behavior : A Study of Recent Indian Data”, *Demography* Vol. 24, No. 4 : 517-553.
- Gu, Baochang(1994), “Synthesis of findings of 8 country Reports: Implications for Policy and Programs”, CPIRC/China, unpublished.
- Hull, Terence H.(1990), “Recent Trends in sex ratios at birth in China”,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16 : 63-83.
- Johansson, Sten and Ola Nygren(1991), “The missing girls of China”,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16 : 63-83.
- Lee, H · T(1982), *Cause of Son Preference in Korea : A Sociodemographic Analysis*, A Research Report to W.H.O.
- Williamson, N.E.(1976), *Sons or Daughters : A Cross Cultural Survey of Parental Preferences*, Beverly Hills, Calif : Sage.
- Yamaguchi, Kazuo(1989), “A Formal Theory for Male Preferring Stopping Rules of Childbearing : Sex differences in Birth Order and in the Number of Siblings”, *Demography* Vol. 26, No. 3 : 451-465.
- Zeng Yi, Tu Ping, Gu Baochang(1993), “Causes and Implications of the recent increase in the reported sex ratio at birth in China”,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Vol. 19, No. 2.

Son Preference and Factors of Efforts for Seeking at Least One Son Among Multipara in Taegu

Han-Gon Kim & Mi-Kyung Lee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factors of efforts for seeking at least one son among multipara in Taegu which have led to the extremely imbalanced sex ratio at birth since mid-1980s. This study is based on the survey data which were conducted among married women who have given births in six major hospitals in Taegu from April 1998 to June 1998.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introduced, and in which five independent variables, four control variables, and two dependent variables were included.

The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 that married women who have the experiences of giving births have a tendency to feel sex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and they also have a strong son preference. According to the results, 24.7 percent of the respondents had tried to have the sex of fetus to be male when they were pregnant. Furthermore, 12.2 percent of the respondents have indicated that they have given efforts to have the sex of new-born baby to be a male after they become pregnant by carrying out sex-selective induced abortion. According to th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he factors of efforts for seeking at least one son among multipara in Taegu are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son preference, having no son, the frequency of abortion, and age.

From the findings of this study, we can conclude that son preference based on Confucianism is the most important impact on sex ratio imbalance at birth in Taegu where son preference has been much stronger than other regions in Korea for several years. The phenomenon of extremely imbalanced sex ratio at birth in Taegu is the result of combination of these factors, such as strong son preference, seeking to have at least one son within small family size, and prenatal sex identification followed by sex-selective induced abortion.

Key words: multipara, sex ratio imbalance at birth, induced abortion, son preference